

부드러움과 고탄력을 자랑하는 폴티타늄 페어웨이 우드

와코 엔터프라이즈

MYSTERY『C-HT520』

MYSTERY 브랜드의 새로운 FW 시리즈 'C-HT520'를 드디어 소개합니다. 아마추어에게 중요한 변수인 페어웨이 우드에 초점을 맞춰서 나카이 노부히로 프로가 그 실력을 파헤쳤습니다.

나카이 와코 엔터프라이즈의 미스터리 'C-HT520'은 올티타늄 바디의 페어웨이 우드 시리즈입니다. 이전 모델을 과거에 테스트 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금 'FD'라는 모델을 들고 있습니다만 #5, #7, #9으로 전개됩니다. 'FD'는 페어웨이 드라이버로 로프트각 14도, 15도, 16도로 3타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15도를 시타할 예정입니다. 모든 변수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바디가 6-4, 페이스에 DAT55G의 세미 컵페이스 구조를 채용했으며 반발성능이 높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UT보다 FW가 더 부드럽다는 점, 그리고 비거리를 추구한다는 컨셉입니다. 자세를 잡아보니 동그란 모양의 투엄감에서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샬로우 페이스&샬로우 백 형상으로 보아 FW답게 볼이 위로 잘 뜰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솔 부분은 홈이 있어서 굵은 날씨에 페어웨이나 러프가 젖은 상태에서 효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FD(15도)
'탕'

나카이 좋습니다. 볼의 초속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볼이 높이 뜨네요. 조금 아래쪽에 맞은 것은 감촉이 들었는데 비거리 성능이 매

우 뛰어납니다. 아래 타점에서 힘있게 느껴지고 공을 부드럽게 들어올려줍니다. 로프트각 15도 오피센터 히트인데 이 정도로 공이 잘 뜨다니 매우 믿음직스럽네요.

■5W

다음은 5W(18도)입니다.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실제 라운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5W입니다. 이번 모델은 티타늄 소재를 채용했기 때문에 '비거리 성능'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볼을 쳐보니 FD와 마찬가지로 고탄도면서 공도 힘차게 나갑니다. 리딩 엣지로 공을 들어올려주는 인상이라 다양한 라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봐도 캐리 200Y, 토탈 220Y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티타늄 소재 FW는 저스핀으로 멀리 날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C-HT520'은 스핀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고탄도'&'비거리'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FW로 핀을 노릴수 있는 실용성이 높은 5W라고 할 수 있습니다.

■7W

다음으로 7W(로프트각 21도)입니다. 이 변수부터 로프트가 옆으로 높기 때문에 페이스 면이 보이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FD, 5W와 달라서 잘 보입니다

볼 스피드	57.2
비거리	214.9
캐리	198.3
타출각	21.5
좌우각	▶2.5
Dispersion	▶0.2
착륙각	47.4
사이드스핀	◀176.2
백스핀	3498.7

7W

볼 스피드	55.6
비거리	193.6
캐리	180.1
타출각	22.0
좌우각	▶2.8
Dispersion	▶0.2
착륙각	50.2
사이드스핀	◀82.8
백스핀	4645.9

9W

볼 스피드	62.2
비거리	236.6
캐리	219.2
타출각	17.3
좌우각	▶2.4
Dispersion	▶0.2
착륙각	44.9
사이드스핀	◀746.6
백스핀	3349.4

3W

볼 스피드	59.0
비거리	219.9
캐리	204.0
타출각	18.5
좌우각	▶2.6
Dispersion	▶0.2
착륙각	46.2
사이드스핀	▶33.6
백스핀	3846.7

5W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FP(페이스 프로그레션). 일반적으로 턱이 나온 스트레이트 등으로 표현되지만 이번 모델은 FP가 적고 현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C-HT520'의 7번 우드는 FP값이 작아 형상이 깔끔합니다.

페어웨이 우드를 선택할 때 FP값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와 FP를 합쳐서 엄밀하게 몇 밀리미터가 아니라 크다↔작다 중 한 쪽으로 가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습니다.

실타도 깔끔하고 좋은 탄도입니다. 캐리로 정확하게 200Y가 나왔기 때문에 7W의 비거리는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깊은 중심을 느끼면서 볼을 캐치하는 움직임이 손까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9W

마지막으로 9W(로프트각 24도). 저도 평소에 아마추어 분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좋은 9W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7W보다 더 페이스가 옆으로 누워있는데 FP가 작기 때문에 샤프트 가까이에 페이스

가 있는 이미지이며 위화감없이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디강성도 탄탄하고 심중심설계로 공이 잘 뜬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실제로 볼을 쳐보니 캐리로 180Y.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티타늄 헤드임에도 볼 스피너량이 있으면서 고탄도로 마지막까지 힘이 느껴집니다. '부드럽다'라고 표현하면 간단하지만 헤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가 잘 잡히는 것과 더불어 핀을 노릴 수 있는 9W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C-HT520'이라면 장거리 코스에서도 활약해줄 것입니다.

총괄

나카이 'C-HT520'(FD, 5W, 7W, 9W)를 시타한 결과 폭넓은 골퍼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FD는 일반적인 스펀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적인 골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헤드 스피드가 필요하지만 로프트각 16도 모델도 있기 때문에 샤프트를 매칭해서 페어웨이로도 쉽게 볼을 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타점에서의 오프센터 히트에 강점이 있고 볼을 주워서 간단하게 공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9W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추천합니다. FP가 낮기 때문에 페어웨이 우드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OK. 제조회사에서 UT보다 부드러운 샷 우드라는 컨셉으로 만들었으며 우수한 방향성은 아이언 수준의 정확도라고 느껴집니다.

샷 우드는 볼이 높게 뜨기 때문에 어게인스트에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C-HT520'의 7, 9W는 높이 뜨면서도 볼이 앞으로 나갑니다. 9W의 캐리는 180Y였는데 볼이 날라가는 모습이나 데이터 보면 국내 남자 투어 프로의 7번 아이언의 탄도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9W는 마치 7번 아이언으로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공 높이, 날아가는 모습, 방향성, 공이 멈추는 모습 등을 이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